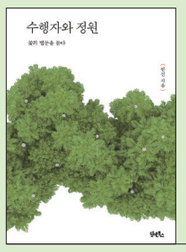
“정원은 자연의 법문을 전하는 또다른 ‘사찰’”



수행자와 정원
현진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대표 ‘문사(文士)’ 현진 스님〈오른쪽 사진〉의 〈수행자와 정원〉은 그가 십 년간 산사의 정원을 가꾸며 수행한 사계절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정원에는 꽃과 바람을 비롯해 자연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는 때때로 피고 지는 꽃의 순환을 보며 꽃의 때가 다 다르듯 인간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 말라고 위로한다. 또 시원한 여름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집착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것을 우리 삶의 지혜로 삼자고 응원한다. 이렇듯 수행자에게 정원은 삶을 위로해 주는 벗이자,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다.

현진 스님의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자연이 전하는 단순한 삶의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전한다. 그가 느낀 정원 생활의 고요와 기쁨은 독자들에게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준다. 현대인의 삶은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찬찬히 둘러보면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지고, 구름이 머물다 지나가듯 하루하루 다른 사건과 사연이 전개되는, 새로운 날들이다. 잠시 멈추고, 찬찬히 둘러보라. 순간순간 나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것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수행자와 정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연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 담긴 책이다.

현진 스님이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꿔온 지도 어느새 십 년 세월이 되었다. 정원 가꾸는 재미로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일해 왔다고 고백한다. 그가 정원 생활을 예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출가자로서 수행과 전법에 더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일상 대부분 흙을 만지며 지냈다. 이렇게 정원 일에 전념한 것은 내 나름의 소신 때문이다. 꽃과 나무들이 전해 주는 법문을 들으며 위로받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 말한다. “나도 남은 인생 꽃처럼 웃다가 친절을 베풀며 아름답게 지고 싶다.”는 것이 꽃을 가꾸는 수행자로서 가지는 그의 소망이다. 친절보다 높은 사원은 없고, 친절보다 귀한 경전은 없다. 그러니까 그의 정원은 자연의 법문을 전하는 또다른 ‘절’인 셈이다.

자연을 닮은 수행자의 솔직 담백한 산문집

불교계 대표 문사로 통하는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평이한 문장으로 남녀노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명문’이라는 그의 소신에 따라, 쉽고 간결하며 담백한 문장으로 감상과 깨달음을 전해 왔다. 현진 스님은 수행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계절을 만끽하는 순간순간의 감동과 아름다움 또한 담백하지만



산승이 전하는 정원생활의 고요와 기쁨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진리명료
정원 생활, 교만심 없애는 일종의 수행

다정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명랑하게, 자연처럼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점도 그의 글의 큰 매력이다. 봄 햇살이 이토록 눈부신데 벚꽃이 속절없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는 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다. 나무 아래는 이미 꽃눈으로 뒤덮여 가지에 매달린 꽃보다 더 찬란하다. 차마 밟고 지나기 미안하여 곁으로만 맴돌며 감상했다. 간간이 꽃잎을 날리는 봄바람이 야속한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 내려앉아 꽃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그야말로 봄날의 파적이다. 눈 내린 아침에는 방 안에서 차 마시며 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 최고의 호사다. 화로에 찻물이 끓어 모락모락 김이 오를 때 음악 선율이 잔잔히 받쳐 주면 그야말로 산중락이 따로 없다. 홀로 즐기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수행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고 밋밋했을 것이다. 설경과 마주하는 이 감성을 어찌 전할 수 있으며 이 기쁨을 그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산사의 설경은 그 어느 곳보다 가히 아름답다 할 것이다. 그의 이런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비유는 자연이 전하는 단순한 삶의 진리를 더욱 명료하게 전한다. 〈수행자와 정원〉서 자연이 들려주는 법문에 귀 기울이며 고요한 행복을 누려 보자.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진리

현진 스님은 정원 생활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기 위한 일종의 수양과 같다고 말한다. 그가 들려주는 정원 생활의 고요와 기쁨의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 생에 다가온 봄날을 외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돋아나는 생명을 통해 삶의 율동과 순리를 배울 수 있어야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다.

그의 정원에는 꽃과 바람이 전하는 깨달음이 가득하다. 그는 때때로 피고 지는 꽃의 순환을 보며 꽃도 피는 때가 다 다르듯 인간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 말라 위로한다. 또 시원한 여름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집착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니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삶의 지혜 삼자고 응원한다. 이렇듯 수행자에게 정원은 삶을 위로해 주는 벗이자,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다.

‘나는 왜 꽃이 피지 않지? 라고 할 필요 없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모두 다르다.’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건 바람처럼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 바람과 같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인생길도 경쾌해질 수 있다. 바람이 가벼운 이유는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바람의 법문은 감정의 정거장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흘려 보내라. 오래 간직하면 종일 기분이 무거워진다. 어차피 떠날 감정인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자신만 손해다. 오늘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면 내 앞을 지나가는 버스라 생각하고 손 흔들어 배웅하라.

늘 바쁘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라지만, 늘 같은 날이 아니라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정원에 같은 날이란 없다. 때에 따라 꽃이 피고, 구름이 머물다 가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도 찬찬히 둘러보면 제각기 다른 사건과 사연이 전개되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다. 순간순간 나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것들 또한 우리가 미처 눈길을 주지 못한 곳에 존재한다. 봄꽃에게서 응원을, 여름 바람에게서 삶의 지혜를, 감나무에게서 위로를, 겨울나무에게서 무욕을 전해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한 〈수행자와 정원〉을 읽어 가며 독자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위로하는 거룩한 법문이 반드시 법당에서만 이루어질까. 꽃과 나무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자연에게 배우며 속진에 물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설교보다 참되다.

출가자의 규범서…27개 주제와 679개 항목으로 정리



석씨요람역주 1·2
석도성 지음
김순미 역주
운주사 펴냄
각권 2만7천원

이 책은 송나라 이후 동아시아 불교를 관통하는 불교 규범서이자 출가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불교 교과서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27개의 큰 주제와 679개의 항목으로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이다.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완역본이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가 이 책이 가진 본래의 의미, 즉 불교 입문서, 개론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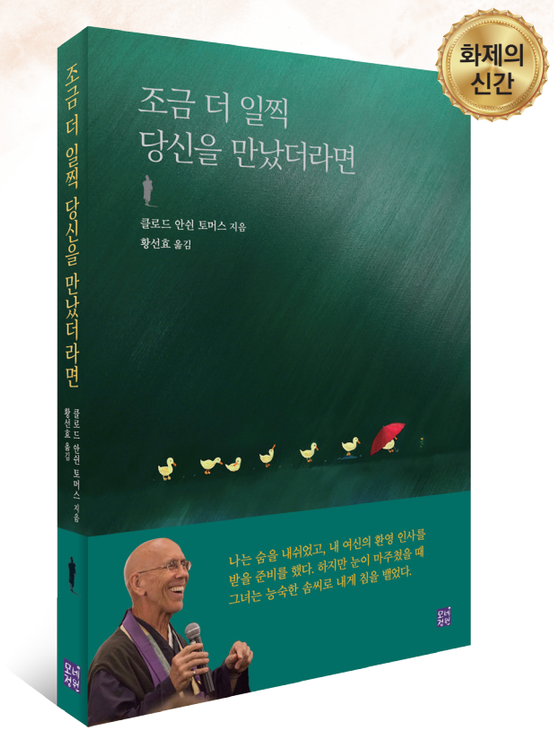
〈석씨요람〉은 1020년 석도성 선사가 찬집한 이래로 불가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 책은 〈번역명의집〉 〈현수제승법수〉와 함께 불학삼서로 불리며 오랫동안 중간을 거듭해 왔으며, 여러 종류의 판본이 존재한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선종사찰서 근세까지도 간행된 것이 확인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승려들을 통해 언급이 될 뿐, 그 존재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불교 용어와 의미, 어원, 예절, 도구, 풍습, 의복, 사상, 규범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이 책은 석도성 선사가 유불서를 가리지 않고 303종이나 되는 책을 탐독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모은 것이다. 책이 찬집되고 천 년이 지났지만, 이 책이 출가자 및 불교 신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출가자의 생활이 큰 변화 없이 이 규범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불가의 명물 전장 칭위 계율 생활의 세세한 예절과 제도 및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왕수가 쓴 후서에 따르면 말 그대로 ‘출가자의 규범서’이다. 초판은 11세기 초에 간행되었는데, 저자 석도성은 ‘처음 법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본말을 몰라 조롱을 받을까 염려되어 찬술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사찰에서는 부록으로 종남산의 도선이 정리한 465조의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를 첨부해 여러 차례 중간하였다. 이렇게 유통되는 동안 〈석씨요람〉은 ‘불학삼서’의 하나로 불리며,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다. 조선에서 간행된 〈불교의식집〉 서문에 ‘불문의 상의집을 만들 때 참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활용되었던 것은 확실하나, 우리나라 판본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불교용어를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는 장점과 〈화엄경〉의 ‘보살십종지’에 의거해 불문의 요점을 잘 간추린 책이라는 강점, 불가의 상례와 유가의 상례가 어떻게 습합되어 시속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와 학계에서는 학술적인 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찬술자인 석도성은 독서량과 범위가 대단히 깊고 넓다.

이 책에서 다루는 679가지의 용어 설명은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풍속연구와 문헌연구, 언어연구, 기물연구 등에도 귀중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지금은 선방서 사용하지 않는 기물들이 설명되고 있고, 중국 북방과 남방의 서로 다른 불교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서로 달리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